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자 료</h1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</div>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 2020.8.26.(수)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<b>담 당 자</b>	송용민 사무관(02-2100-2953)
	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김민수 사무관(02-2100-2578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중 훈(02-2100-2990)		권민영 사무관(02-2100-2991)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	최범석 사무관(02-2100-2836)
	금융위 시장분석과장 이 석 란(02-2100-2850)		김준수 사무관(02-2100-2855)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	배수찬 사무관(02-2100-2836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	나혜영 사무관(02-2100-2652)
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	윤동욱 사무관(02-2100-2971)
	금융위 기업회계팀 김 선 문(02-2100-2690)		차영호 사무관(02-2100-2692)
	금융위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정 선 인(02-2100-2841)		김기훈 사무관(02-2100-2872)
	금감원 감독총괄국장 홍 길(02-3145-8300)		윤덕진 부국장(02-3145-8001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노영후 팀 장(02-3145-8050)
	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조 성 민(02-3145-8370)		김충진 팀 장(02-3145-8380)
	금감원 리스크업무실장 김 성 우(02-3145-8350)		임종건 팀 장(02-3145-8360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(02-3145-7460)		박지선 부국장(02-3145-7450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(02-3145-6770)		전홍균 팀 장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정 용 걸(02-3145-7550)		문재희 팀 장(02-3145-7552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한 홍 규(02-3145-8070)		박현섭 팀 장(02-3145-8072)
	금감원 외환감독국장 김 동 현(02-3145-7920)		곽범준 팀 장(02-3145-7928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7580)		이상현 팀 장(02-3145-7617)
	금감원 IT·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전 길 수(02-3145-7420)		장성옥 부국장(02-3145-7415)

**제 목 :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 
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.**

**- 「“금융규제 유연화 방안”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」 발표**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」\*을 마련·추진 중입니다.

\* 4.16(목)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·의결

- 8.26일 현재 1개 과제\*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\*\*에 기여하였습니다.

\*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 (9월중 완료 예정)

\*\*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.3조원 증가하여 '19년 연간 증가액(48.8조원)의 1.6배 수준을 상회

< 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(단위: 조원) >

구분	'18년말	'19.6말	'19년말	'20.6말	증가액
은행	857.7	885.3	906.5	987.8	+81.3
보험사	101.2	105.7	113.0	120.5	+7.6
저축은행	34.1	34.6	37.2	39.2	+2.0
여전사	43.1	46.6	51.1	54.2	+3.1
상호금융	95.4	104.4	113.8	130.2	+16.5
합계	1131.5	1176.6	1221.6	1331.9	+110.5

- 금융위원회는 8.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

-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완화 기한 연장,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,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'금융규제 유연화 방안'의 연장·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.

- 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\* 기한 연장 : '20.9월말 → '21.3월말  
 \* 외화 LCR 80%→ 70%, 통합 LCR 100%→85%
- ②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\* 기한 연장 : '20.9월말 → '20.12월말  
 \* (1)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(0~32%→0~16%)  
 (2)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(위험값 100%)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(0~32%) 적용
- ③ 산은 NSFR\* 규제 유연화 확대\*\* : (유예 폭) 10%p → 20%p,  
 (기 한) '21.6월말 → '22.6월말  
 \* NSFR(Net Stable Funding Ratio): 안정자금가용금액/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≥ 100%  
 \*\*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(기업유동성지원기구(SPV) 운영 등) 반영

□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'금융규제 유연화 방안'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

-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\*를 통해 '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'를 기존 방안\*\*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\*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

· (7.23일) 5대 금융지주회장, (7.29일) 정책금융기관장, (8.12일) 금융협회장 등

\*\*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('20.7월)

·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추가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1.5%

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별첨) 「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
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